

# 대학평가정책에 따른 학과의 대응 -A대학교 기독교교육과 사례를 중심으로-

장화선<sup>1</sup>, 송윤희<sup>2\*</sup>

<sup>1</sup>안양대학교 기독교교육과 <sup>2</sup>안양대학교 교양대학

## Actions of the Department in Context of Higher Education Evaluation Policy

### -A Case on the Christian Education of A University-

Hwa-Seon Chang<sup>1</sup>, Yun-Hee Song<sup>2\*</sup>

<sup>1</sup>Department of Christian Education, Anyang University

<sup>2</sup>College of Liberal Arts, A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의 과정 중에 대학 평가정책에 따른 학과의 대응을 A 대학교 기독교교육과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평가정책의 배경,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살펴보고 학과의 대응으로 특성화, 교육과정, 수업의 질관리, 교육성과, 학생지원, 지역사회의 협력 및 기여를 논의한다. 학과의 특성화는 교육목적, 인재상, 교육목표 및 핵심역량과 관련 있고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진로 트랙을 제시하고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여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의 질 관리는 A대학교의 학사지원과, 교육품질관리센터, 교육역량강화센터와 연계한 강의관리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있고 학과의 교육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고 중도 탈락율을 낮추도록 적극적인 학업지도 및 상담의 실시하고 있다. 학생지원은 A 대학교 학교 차원의 비교과 프로그램과 학과 차원의 비교과프로그램, 학업·진로·취업지도 및 상담, 학생역량관리 등이 있다. 지역사회 협력 및 기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안양시 및 기타 지역의 교육기관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60시간 교육봉사, 지역학교 행사의 지원 봉사, 교사 초청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대학교육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대학평가정책, 대학구조개혁 평가, 대학 기본역량진단, 학과의 대응, 기독교교육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actions of the department of a university according to Higher Education Evaluation Policy as a case on the department of Christian education of A University. This article consists of background and policy Higher Education Evaluation and actions of the department of Christian education. Specialization, curriculum, management of instructional quality, educational achievement, student support and cooperation of local community as category of trends of the department of Christian education are discussed. Aim of education, model of human resource, educational objects, and key-competency as the specialization of department of Christian education are discussed. Curriculum of department suggests students career track which is related to their career. Positive guidance counseling are implemented for rate of recruit related to educational achievement. Non-subject matter program of University and Department are introduced for students's support. 60 hours of educational service and other educational activities are carried out for local community. Principal, chaplain of school and teachers are invited for educational practical affairs of education. The result of this article can be used as a basic reference for the direction of the higher education.

**Key Words** : Higher Education Evaluation Policy, Higher Education Structure Reform Policy, Higher Education Basis Competence Diagnosis, Actions of the Department, Christian Education

\*Corresponding Author : Yun-Hee Song(song@anyang.ac.kr)

Received May 25, 2018

Accepted June 20, 2018

Revised June 12, 2018

Published June 30, 2018

## 1. 서론

올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교육부에서 실시함에 따라 각 대학교는 평가를 치루고 그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평가와 결과는 향후 대학의 방향성 및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 내에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정원 감축을 사전에 대비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평가,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더불어 이미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대학 특성화사업(CK), BK 21 플러스 사업,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사업 등을 통해 대학정원의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대학진학률의 하락에 따라 2023학년까지 대입정원을 16만 명으로 줄여야 함에 근거하고 있다. 2014년 1월 29일에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3년까지 3주기에 걸쳐 입학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구조개혁과 관련된 대학 평가 정책을 살펴보고 학과 중 기독교교육과의 대응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대학 평가의 배경과 평가지표를 포함한 주요 정책 내용을 살펴본 후, A대학교 기독교교육과의 특성화, 교육과정, 수업 질 관리, 교육성과, 학생지원, 지역사회 협력 및 기여 등으로 구분하여 대응을 논하고자 한다.

## 2. 대학 평가 정책의 배경 및 정책

### 2.1 대학 평가 정책의 배경

최근 정부가 주도하여 대학의 운영과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대학 평가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다. 대학 평가의 배경으로는 대학의 체질 개선을 기반으로 한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수요 맞춤형 교육을 통한 대학 교육의 미스매칭 완화, 고등교육의 균형 발전을 통해 지역 및 대학의 상생·발전 추구,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절벽을 대비한 지속적인 대응 필요, 고등교육 패러다임 전환, 고등교육 신뢰 회복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한국 대학뿐만 아니라 외국대학도 비슷한 상황이다[1]. 대학 평가 정책의 배경이 되는 다양한 원인 중 대표적인 내용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제고되어야 한다[2,3]. 인적자원 양성과 지식창출을 위해 고등교육을 확대해 나가면서 대학은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에 치우쳐져 왔다[3,4]. 이제는 소모적으로 대학들이 경쟁하는 것을 줄이고 대학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앞서 국립대학이 기초보호 학문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를 발전시켜야 하며 사립대학은 자율성이 높은 재정지원을 토대로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였으며 그에 따른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미래인재를 양성해야 한다[2,5]. 이를 위해 전통적으로 고정화되고 경직된 교육과정 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유연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수요 맞춤형 교육을 통한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것이 시급하며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여가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 등 학생들의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대학입학자원의 감소는 대학 구조개혁의 직접적인 동인이다[2,4-6]. 교육부는 2020년 이후 입학정원과 입학자원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예측할 때, 대학의 적정 규모 조정, 부실 및 비리대학에 대한 구조개혁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100세 시대로 바뀌어가는 요즘, 고등교육은 유학생, 재취업학습자 등 새로운 수요의 창출이 필요하다.

넷째, 고등교육의 균형 발전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및 발전이 필요하다[2,6]. 지역균형 발전, 대학 특성화, 지역특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6]. 교육부 또한 대학이 교육, 연구, 산학협력, 사회봉사 등을 지역사회와 협력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산업인력을 육성하며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는 상생 구조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2.2 대학 평가 정책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대학 구조조정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구조개혁은 정부가 범규 신설, 평가, 재정지원 등을 연계하여 대학구조의 변경을 공적이면서 타율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구조조정은 대학의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의미가 강하다[7]. 하지만 일부 학자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두 용어를 통합하여 활용하고 있다. 신현석은 대학구조개혁을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자체 혹은 정부 차원에서 시도되는 대학의 학사, 인사, 행정 및 재정 등 교육 및 조직 구조의 합리적 재편으로 대학 내뿐 아니라 대학 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계획적인 변화노력을 통해 새로운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8].

또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란 대학조직 내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대학체제의 양적 구조 개편(예: 입학정원 감축, 대학 간 통폐합, 부실대학 퇴출 등), 대학의 학사 및 체제 개선(예: 대학별 특성화, 학과 개편, 교육과정 개편, 회계제도 개선, 교직원인사제도 개선 등), 행정 및 재정적인 조치(예: 구조조정 실적과 재정 지원과의 연계, 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마련, 등) 등을 수행함으로써 대학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계획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9].

2015년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위해 대학과 전문대를 구분하여 1단계로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를, 2단계로 중장기발전계획, 교육과정, 특성화를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교육부는 먼저 1단계 평가를 통해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3년 동안 부정이나 비리가 발생 대학은 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 하향조정이나 감점하였다. 결과 발표로 그룹I은 A(95점 이상), B(90점 이상), C(90점 미만) 등급을 받은 학교이며 그룹II는 D(70점 이상), E(70점 미만) 등급을 받은 학교였다. 교육부는 1단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후 C등급으로 일부 대학교만 상향 조정되었으며 D등급을 D+와 D-로 구분하였다. 최종 A등급을 받은 34개교는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였으며 B등급을 받은 56개교는 정원의 4%를, C등급을 받은 36개교는 7%를, D등급을 받은 26개교는 10%를, E등급을 받은 6개교는 15%를 감소하도록 권고받았다.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이후, 교육계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대학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2]. 개별 대학들의 여건과는 거리가 먼 지표를 충족해야 하는 압박감이 있으며 대학은 교육과 연구보다는 평가점수를 올리기 위해 서로 눈치를 보며 소모전을 치루는 비정

상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대학들이 수동적인 입장이 아닌 능동적인 입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으며 정책의 목표, 내용, 수단, 결과 활용에 대한 합리적인 단계와 실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6,7].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한 후, 정부와 이해집단들의 서로 엇갈린 의견들이 도출되어 쟁점화되었다. 따라서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평가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라고 평가명을 수정하였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대학을 평가하기보다는 진단과 지원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교육부는 기본역량 진단을 토대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시 전국의 대학을 등급화하여 서열화시키고 정원 감축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다른 평가목적 및 결과활용, 평가지표, 평가운영으로 구분한다고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세부적으로 등급을 나누지 않고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대학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고 하였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개선대학에게 감축을 권고하지 않고 일반 재정을 지원하며, 역량강화대학은 적정 규모를 유도하며 특수 목적 사업을 통해 특화 발전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운영의 효율화 추진 또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며 법인의 책무성, 구성원의 참여 및 소통을 진단하며 부정·비리대학은 제재를 강화한다고 하였다. 정원 감축은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에 감축을 권고하며 권역별 감축 비중의 하한을 설정한다고 하였다. 또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 정보공시, 사립대학재정회계지표 등을 공개함으로써 학생의 선택 지원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진단 방향에 따른 관련 법률을 제정하며 정책연구를 통해 폐교 시 교직원을 보호하는 고등교육법 등을 재정을 검토 중이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제외되는 대학은 재학생 정원이 100%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인 대학이거나 50% 이상 종교계 학과 위주 대학, 재학생 50% 이상이 예체능 계

열인 대학, 설·전환·통폐합 등으로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18.3월 기준)한 대학, 그리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대학이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진단을 실시하며 일반대의 경우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강원권, 부산·울산·경남권, 호남·제주권으로 권역을 분류한다. 진단팀은 10명 내외가 1개 지표팀으로 구성되어 진행됨으로 1개 대학 평정위원회는 40명 내외가 된다.

1단계에서는 발전 계획 및 성과(2점), 교육 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21점),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20점), 학생 지원(16점), 교육성과(16점)를 평가하며 2단계에서는 전공 및 교양교육과정(11점), 지역사회 협력·기여(5점), 대학 운영의 건전성(9점)을 평가한다. 진단결과에 토대로 따라 재정지원 제한대학 유형 I 과 II로 구분하여 정부 재정지원을 차등적으로 하게 된다. 재정지원 제한유형 I 대학은 대학별 여건, 재정지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을 일부 제한하며 재정지원 제한유형 II 대학은 정부 국가장학금, 재정지원 사업, 학자금 대출 등 재정지원 전면 제한된다. 또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한 정원 조정, 수요자의 선택, 통·폐합 촉진, 한계대학 퇴출, 새로운 수요 창출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양적 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3. 학과의 대응과 개선 방향

본 장에서는 대학 평가 정책에 따른 A 대학교 기독교교육과 대응을 학과 현황과 개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3.1 특성화

A대학교 기독교교육과는 학과의 특성을 나타내는 교육목적, 인재상, 교육목표 및 핵심역량을 수립하였다. A대학교의 건학이념은 기독교정신과 한구석 밝히기이며 교육목적은 한구석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 육성이다. 이에 따른 기독교교육과 교육목적은 대학 건학이념과 교육 목적을 기반으로 기독교정신과 한구석 밝히기 정신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기독교인 교육자를 육성하는 것이며 학과 인재상은 실천·창의·인성 인재로서의 기독교교육 전문가로 정하였다. 기독교교육과의 목표는 기독교정신과 한구석 밝히기 정신을 바탕으로 기독교교육(종교교육)에 관

한 전문적인 이론과 실천을 탐구하여 인성과 자기 주도적 역량을 겸비한 실천적 창의 인재로서 종교교사, 교회 교육 사역자, 청소년 상담사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학과의 핵심역량은 의사소통 역량, 리더십 역량, 인성·영성 역량, 융합실무 역량, 글로벌 역량, 문제해결 역량으로 구분하였다.

기독교교육과 발전계획 수립과 운영을 위해 핵심교육 기능, 교육지원체계 강화 및 교육여건 개선으로서의 인프라 첨단화에 주력하고 있다. 핵심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역량 및 진로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현장역량을 향상시키는 정규교과와 비교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수업은 학습자중심으로 전환하며 평가 방식을 개선함으로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복수전공을 유지하고 타 학과나 타 전공과의 연계하여 관심사에 따라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재 인문대학 유아교육과에서 복수전공을 하여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본교 대학의 타 전공 트랙과 연계 전공을 권고하고 있다.

교육지원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 교직원 함양 프로그램 및 취업지도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장학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입생 적응프로그램으로 입학 전 한 주간 동안 아리비전 학기를 운영하여 대학생활의 방향 설정과 장기적인 경력 개발 계획 수립할 뿐만 아니라 단과대학 및 학과별 모임을 통해 교수, 선배, 동료와 관계를 형성하며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학대학 개강집회와 경건훈련은 영성역량을 높이게 하며 전국기독교교육과 연합회 어울림제는 전문 기독교교육자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교직원 함양 프로그램으로는 수업시연 촬영 및 수업 행동분석 평가, 교직 적성 인성 검사 후 미통과자 함양 교육, 공과교재개발대회, 학교현장이해 프로그램, 전국기독교교육과 연합회 학술제, 단기해외 현장학습 체험, 해외봉사활동 등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기독교교육과 학생들은 총장 특별 장학, 성적 우수, 봉사, 국가 장학금 유형 I/II, 장학사정관제, 민들레 장학금, 국가 근로 장학금, 인턴 장학금, 외부 장학금 등의 장학지원을 받고 있다. 그 외에도 인프라 첨단화를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과 전용 강의실을 첨단화하고 학과 자료실에 학과 전공 도서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을 통해 기독교교육에 대한 관련 도서를 구입하고 전공에 관련된 국내외 학술자료를 활용할 수 있

도록 교육하고 있다.

이와 같이 A대학교 기독교교육과는 대학 평가 정책에 대응하여 교육목적, 인재상, 교육목표, 핵심역량을 개선하며 핵심교육 기능 강화, 교육지원체계 강화 및 인프라 첨단화를 통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향후 학과의 개선 방안은 먼저 본과가 나아가 갈 핵심적인 특성화 방향을 명확하게 수립하는 것이다. 사범계 기독교교육과, 개혁주의 및 보수주의 신학성향, 한구석 밝히기의 학교 이념 등 A대학교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기독교교육과 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 3.2 교육과정

A대학교 기독교교육과의 신학적 성향은 개혁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신앙과 삶의 규범이자 최종적 권위가 됨을 인정한다[10]. 이러한 신학적 성향 및 상기의 교육목적과 인재상 등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이 수립되었다. 최근 교육과정 진단 및 개선은 2012년에 실시되었으며 이 시기에 학과의 핵심역량을 수립하고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하였다. 2016년에는 2017년 교육과정 개편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개선 및 교육과정보고서 작성이 수행되었다. 2017년부터는 학생전공지도를 위한 진로트랙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향후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여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교과목별로 주요 핵심역량, 역량증진 방안, 역량평가 방법을 강의계획서에 함께 제시하고 있다. 현재 A대학교 기독교교육과는 전공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포함), 교직 23학점 이상, 전공과목 전체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 전체평균 80점 이상, 4주의 학교현장실습, 60 시간의 교육봉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의 이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복수전공(유아교육과)을 실시하고 있으며 융합(연계)전공을 권장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교육과정 A-PDS(Plan, Do, See) System을 도입하여 교육과정의 분석 및 설계, 개설 및 운영, 평가 및 환류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 편성과 개편 등을 통합한 질 관리를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전공교과과정 개편 주기는 1년으로 하며 교과품질관리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다. 교과품질평가의 평가체계 개발, 평가결과 분석 및 피드백은 A대학교 교육혁신원 교육품질관리센터에서 주관하며 교과품질평가는 전공별로 매 학년도 말에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결

과를 교육혁신원에 통보한다.

교육과정의 개선방향은 현재 기독교교육과에서 세 개의 진로트랙 곧 종교교사, 교회교육 사역자, 청소년 상담사로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방향에 따라 교과 및 비교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함이 필요하다. 또한 기독교 교육의 정체성을 확보함과 더불어 신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을 수용하는 간학문 간의 시도하는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기독교교육은 이론과 실제의 연구를 추구하고 있으며 학생들 또한 현장과의 연계에 대한 필요성을 요청함에 따라 교과목 수업 내용에서 교회현장, 학교현장, 기독교기관 등의 현장 실무와 연계할 수 있는 수업 운영이 필요하다[10].

### 3.3 수업 질 관리

수업 질 관리는 학사지원과, 교육품질관리센터, 교육역량강화센터와 연계하여 강의관리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다. 강의개설, 강의계획, 강의운영, 휴·보강관리, 강의평가, 강의품질관리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강의개설 단계에서는 강의개설 강좌에 대한 평가를 거치게 되며, 강의계획 단계에서는 강의계획서를 평가받게 된다. 강의운영 시에는 중간고사 성적입력, 학생의 중간평가, 교수자 자가평가, 강의촬영 및 분석, 학습자 진단평가 등을 거치게 되며, 휴·보강 시에는 계획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강의평가 단계에서는 학생의 강의평가, 강의평가 공개, 강의컨설팅 등이 이루어지며, 강의품질관리 단계에서는 교육역량 개선 프로그램, 교수역량 공유 및 확산, 티칭 포트폴리오 작성 등이 있으며 수업품질관리를 위한 교수자의 노력과 성과는 업적평가에 반영된다. 그 외에 교육역량강화센터 및 부서 등에서 진행하는 교수법 특강 및 워크숍, 전공 및 계열별 수업연구회 등의 참여를 통해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향후 수업 질 관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좋은 대학수업의 특성을 분석한 안지혜에 따르면 학습내용 구성과 제시 방법, 학습동기 유발 및 학습 지원, 학습방법, 학생 학업성취평가 및 수업평가, 단위수업 및 한 학기 전체수업 관리 등에서 차별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수업의 질 관리를 실시하며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11].

### 3.4 교육성과

교육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학과 교수는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고 중도탈락율을 낮추고자 적극적으로 학업지도 및 상담을 실시하며 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취업지도와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교육만족도(교과과정, 학교 수업, 비교과 교육활동 등), 교육과정만족도(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강의만족도(교수 수업 준비도, 높은 수업의 질, 공정한 수업 평가, 교수의 학생 관계 노력), 전임교수 강의율 등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성과에 대한 개선점은 기독교교육과의 타학과 및 전공, 타대학 기독교교육과의 교육성과 비교를 통해 현 위치를 파악하고 부족한 영역에 대한 개선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차원의 교육성과 외에도 학과차원에서 학생들을 관찰, 면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 3.5 학생지원

학생지원은 A대학교 학교차원의 아리(아름다운 리더) 비교과프로그램과 학과차원의 비교과프로그램, 학업·진로·취업지도 및 상담, 학생역량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 차원의 아리비교프로그램은 인재상과 역량을 중심으로 각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아리비교과센터에서 마일리지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학과에서는 각 부서별 프로그램을 학업진로 및 상담 시 소개하고 있어 학생들의 부족한 역량을 고취시키고 있다.

아리비교과프로그램 중 학과와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예는 Jump-up 프로그램이다. Jump-up 프로그램은 학습이 어려운 원인을 파악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대상은 복학생, 편입생, 성적경고자(평점 1.5 미만자, 4 과목 이상 F인 자), 학업부진자(평점 2.0이하)의 학생이며 성적경고자의 경우는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전공지도교수는 멘토로 학기별로 총 2회 이상 생활지도를 상담해야 하며, 전공학습과 학과생활을 상담한다. 기독교교육과의 경우, 복학생, 학업부진자 등을 중심으로 Jump-up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학생지원을 위한 학과차원의 비교과 프로그램은 기독교교육과 예배, Deep Talk! 기독교교육과, 기독교교육과 특강(학교현장이해), 전국 기독교교육과 연합회 어울림

제, 교생실습 평가회, 공개개발대회, 전국 기독교교육과 연합회 학술제, 기독교교육과 코이노니아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학생들의 학업과 관련된 상담을 살펴보면 지도교수는 전공과목의 7주-9주차 동안 5교시 이상 결석자 또는 10주-12주까지 6교시 이상 전공과목 결석자, 결석횟수 10교시 이상 장기 결석자(중도탈락 예방)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중간고사 학업부진자(성적 하위 20%)도 상담대상이다. 상담절차는 학과 전임 교수가 담당 과목별 중간고사 학업부진자 명단을 작성한 후 학과회의를 통해 명단을 취합한다. 지도교수별로 학업부진자 상담을 실시한 후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상담 결과를 학과장이 취합하여 학사지원과에 제출한다.

그 외에 진로지도는 진로상담과 진로관련 필수 교과목 강좌를 참여하게 한다. 또한 상시진로지도 시스템을 참여하게 하고 취업관련 자격증 및 서류증 취득을 지원한다. 취업지도로는 취업 교수제 적용, 취업 세미나 과목 운영, 심폐 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성인, 아동 CPR) 등을 진행하고 있다. 1학년 1, 2학기에 '아리진로탐색과 대학생활', '아리진로상담과 창의융합 기업가정신' 강좌를 1학점씩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대학생활 초기부터 자아성찰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진로에 대해 미리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A대학교 커리어개발센터는 취업지도 상담을 실시하며 취업세미나 교과목을 운영하고 경기청년뉴딜사업 등에 참여하도록 한다. 또한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 진로적성 소질검사(Wide Me) 등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이력을 관리하도록 돕고 있다.

학생지원의 개선 방향은 학생들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상황과 그에 따른 학습을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부진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학과차원에서의 다양한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과의 비교과 프로그램도 학과 핵심역량과의 연계 및 보완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전공심화 및 실무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공동체 형성을 유도하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습, 진로설정 및 취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유기적인 체제가 필요하다.

### 3.6 지역사회 협력 및 기여

지역사회 협력과 기여를 위해 지역학교에서의 행사

(수련회, 합창제, 절기예배 등)에 지원 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 중·고등학교와 밀접하게 협력하여 학교장, 교목, 교사는 특강 강사로 초청되어 학교 현장 실무를 전달해 준다. 기독교교육과 학생들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하여 학교현장을 이해할 기회를 갖는다. A대학교 기독교교육과는 사범계 학과로서 학생들은 모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60시간 교육봉사를 하고 있으며 4학년 1학기에 4주간 동안 학교현장실습을 경험하게 된다.

지역사회와 협력 및 기여 측면은 다른 영역에 비해 향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A대학교는 안양시 뿐만 아니라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수원시 등과도 지리적으로 밀접하다. 따라서 그 지역의 교회, 기독교교육기관, 학교 및 유치원, 관련 지역기관 등과 MOU 등을 맺어 협력적인 사역이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유관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턴, 봉사 등을 통해 실무경험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근처 타 대학 기독교교육과의 협력적인 교육 및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 평가 정책에 따른 A대학교 기독교교육과의 대응으로 현황과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정과제의 추진 방향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표를 일부 수정하였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는 현재 진행 중이고 대학은 향후 변화될 고등교육 모습에 맞춰 혁신을 모색하고 있다. 기독교교육과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정부차원의 평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언할 바는 대학은 더 이상 구조개혁의 수동적 객체가 아닌 능동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 대학 구조개혁을 시장의 메커니즘이나 정보의 최소개입에 의해 진행되는 서구사회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대학이 순응하는 위계적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 대학이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미래사회의 인구감소, 수명연장에 따른 평생교육 필요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개혁의 능동적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은 다양한 교과활동 및 비교과 활

동을 통해 융합적 교육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12]. 공교육 또한 초중등 이러닝 활성화 정책, 학교 밖 학습 지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과 같은 미래 교육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학과들은 변화하는 사회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이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Y. K. Tschong. (2016). Die europäische Hochschulreformpolitik im Zeichen des akademischen Kapitalismus. *Zeitschrift fuer pädagogische Forschung*, 21(3), 101-122.
- [2] S. J. Ban (2016). For the restructuring of university ground structure beyond university structure reform. *Education Review*, 38, 23-45.
- [3] Y. K. Im. (2005). The characteristics and issues of the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in Korea.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3(4), 243-268.
- [4] T. H. Lee, & J. I. Kim (2017). The research of developing meta-evaluation standards of the university reform evaluation: In respect of evalua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 649-662.  
DOI : 10.5762/kais.2017.18.1.649
- [5] B. W. Kang. (2005). Policy suggestions for university structure reforming plan of government.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3(2), 421-446.
- [6] K. Y. Park. (2014). How can we reform the university structure? *Economy and Society*, 103, 33-53.  
DOI : 10.18207/criso.2014.103.33
- [7] H. S. Shin. (2016). Issues and tasks of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policy.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4(5), 125-162.
- [8] H. S. Shin. (2004). The Politics of Restructuring Universities(I). *The Journal of Politics of Education*, 11, 90-120.
- [9] Y. K. Lee. (2010). *A Delphi Study on Forecasting the Future of Junior Colleges and the Direction of Their Restructuring*. Unpublished doctoral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 [10] H. S. Chang. (2013). Curriculum Diagnosis of Christian Education and Proposal: A Case of Christian Education Department of A Universit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3, 121-143.  
DOI : 10.17968/jcek.2013..33.005

- [11] J. H. Ahan. (2011). A qualitative study on characteristics of "good" college classes.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2(1), 163-191.
- [12] Y. J. Choi. (2017). Effects of competency-based extracurricular activities on architectural convergence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7), 225-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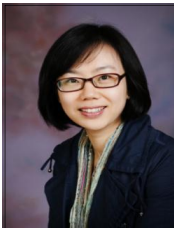
장 화 선(Chang, Hwa Seon) [정회원]



- 1982년 2월 :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교육학석사
- 199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 문학박사
- 1989년 3월 ~ 현재 : 안양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

- 관심분야 : 융합교육, 교사양성, 교수-학습방법
- E-Mail : hschang@anyang.ac.kr

송 윤 희(Song, Yun Hee) [정회원]



- 2007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 석사
- 201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 박사
- 2007년 7월 ~ 2010년 6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원

- 2011년 3월 ~ 2013년 2월 : 한밭대학교 교양학부 강의 전담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안양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 관심분야 : 융합교육, 집단지성, 스마트러닝
- E-Mail : song@anyang.ac.kr